

국내 뉴스

1.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심사 결론 임박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심사하고 있는 미국 당국이 다음달 중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미국의 기업결합 승인이 나면 유럽연합(EU),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의 심사가 속도를 내면서 두 기업의 결합 심사는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달 초부터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등 대한항공 임원과 담당자를 잇따라 만나 기업결합 본심사 관련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기업결합 심사 절차상 인수 기업의 사장부터 담당 임원, 주요 실무진까지 미 법무부와 인터뷰를 마쳐야 한다.

미 법무부는 다음달 초까지 인터뷰를 진행하고 대한항공의 합병 이후 시정 조치 등을 검토한 뒤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을 밝힌 이후 약 2년 동안 기업결합 승인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기업결합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터키, 대만, 베트남, 호주 경쟁당국에서 승인을 받았고, 필수신고국인 미국과 EU, 일본, 중국, 임의신고국인 영국이 남아있다.

이 가운데 미국, EU, 영국은 기업 결합 전과 비슷한 경쟁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규 진입 항공사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아시아나항공의 대체 항공사를 제시하기 위해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해외 항공사 등과 미주, 유럽 노선 운항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미국 당국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하고 국내 LCC와 협력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결론을 내면 나머지 국가의 승인에도 영향을 미쳐 곧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영국 경쟁시장청(CMA)도 지난달 16일 1차 본심사에 착수하는 등 최근 주요 국가들이 속도를 내고 있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연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가 모두 종결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EU 경쟁당국이 올해 초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을 불허하는 등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어 선불리 예단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시장 영향력이 높은 미국이 승인 결정을 하면 다른 국가에서 이와 반대되는 결정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이후 중국과 EU, 일본 등에서도 해당 결정을 참고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출처: AIRZINE (한국항공 협회, <https://news.airportal.go.kr/>)

2. 복지 확대에 신규 채용까지...대한항공, 하늘길 정상화 '속도'



대한항공이 근속 10년 직원들에게 항공권을 지원하는 등 사내 복지를 확대하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 동안 유·무급 휴직으로 지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다. 대한항공은 세 자릿수 규모의 승무원 채용에도 나서며 경영 정상화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근속 10년 직원에게 연 2회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을 지급하는 복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동안 근속 20년·30년 직원을 대상으로 항공권 지원 혜택을 제공해왔지만 처음으로 10년차 직원에게까지 복지를 확대한 것이다. 이번 복지 확대의 목적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인 것으로 보인다.

항공업계는 코로나 19로 여객 수가 줄어들면서 공급 운항 편수 급감이라는 악몽을 겪었다.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운항 편수는 2019년 16만 674편에서 2020년 7만 9983편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2019년 10월부터 선제적으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인력 감축을 단행했다. 근속 만 2년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 무급 휴직을 신청받았고 정기 임원 수를 27% 줄였다.

직원 1 만 7000 여 명 중 절반가량은 코로나 19 사태 동안 휴업을 통해 회사와 고통분담을 해왔다. 올 들어 9 월까지 대한항공의 국내·국제선 공급석(971 만 8095 석)은 2019 년의 43% 수준까지 회복되면서 직원들의 순차적인 복직은 물론 복지 확대를 통해 우호적인 내부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대한항공은 인력 확보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대한항공의 올 상반기 직원 수는 1 만 7555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0 명가량 감소했다. 6 개월 동안 400 명이 넘는 직원이 회사를 떠난 셈이다.

대한항공은 인력 확충을 통해 앞으로 본격 증가할 여객 수요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국내선·국제선 여객 수는 476 만 2919 명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 19 가 본격화한 2020 년 2 월(398 만 9498 명) 여객 수를 넘어선 수준이다.

대한항공은 수요에 맞춰 증편을 이어가고 있다. 당장 다음 달부터는 일본 노선을 주 49 회에서 주 61 회로 늘린다. 이번에 채용하는 세 자릿수 규모의 신규 객실승무원은 내년 상반기쯤 실무에 투입할 예정이다.

[출처] <https://news.airportal.go.kr/>

3. 일주일만에 2000% 폭증한 日 방문객...항공사 증편 '속도'



10~16일 인천~일본행 여객 6만명...전년비 2346% '↑'

"日 비중 높은 LCC에게 '단비'"

일본 정부가 무비자 개별관광을 허용한 이후 일본을 찾는 한국 관광객이 폭증하고 있다. 이에 항공업계도 일본 여행객들을 잡기 위해 노선 증편에 속도를 내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행 비행기를 이용한 여객 수는 6만1937명으로 집계됐다. 작년과 재작년 같은 기간에는 3233명과 2532명이 이용했다. 각각 2346%, 1815%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전이었던 2019년의 14만3236명에는 못 미치지만 빠르게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일본 정부가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지난 11일 아시아나항공의 김포~하네다 노선의 경우 만석을 기록하는 등 평균 탑승률이 98%였다. 또 제주항공의 일본 노선 탑승률은 97.5%, 오사카만 운항한 티웨이항공도 99%에 달했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대형항공사(FSC)는 물론 저비용항공사(LCC)도 증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한항공은 다음달부터 김포~하네다 노선을 매일 2회로, 인천~후쿠오카 노선을 수, 목, 금, 일에서 매일 운항으로 증편한다.

또 아시아나항공도 오는 30일부터 김포 하네다 노선을 매일 2회 운영한다. 인천에서 출발하는 나리타와 오사카 노선도 기존 주 10회와 7회에서 12회와 10회로 늘린다. 12월부터는 매일 2회씩 총 주에 14회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나고야와 후쿠오카 노선도 늘릴 예정이다.

제주항공은 오는 30일부터 김포~오사카 노선과 인천~삿포로 노선을 주 14회 일정으로 재운항한다. 인천~나고야 노선은 11월22일부터, 인천~오키나와 노선은 12월1일부터 주 7회 일정으로 운항할 예정이다. 특히 이달 말부터 일부 노선들은 매일 3회로 증편할 계획이다.

티웨이항공도 현재 인천에서 출발하는 후쿠오카, 오사카, 도쿄 등 3개 노선을 12월까지 매일 3회 운항으로 증편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음달에는 인천~삿포로, 대구~후쿠오카, 대구~나리타, 부산~오사카, 제주~오사카 노선도 재개하고 매일 운항에 돌입한다. 이 밖에 진에어와 에어부산 등의 LCC들도 증편에 서두르고 있다.

일본 노선의 재개는 항공사들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 수만 700만명을 웃도는 등 국내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특히 LCC는 4분기에 적자 폭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LCC의 매출에서 일본 노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기는 등 핵심 노선으로 꼽혀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무비자 입국 허용으로 일본 노선 수요 회복이 기대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최근 엔저 효과 등으로 인해 관련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https://news.airportal.go.kr/>

4. 에어부산, 10월 제주 노선에 임시 항공편 74편 투입



에어부산은 제주도로 떠나는 여행객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제주 노선에 임시 항공편을 투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에어부산은 15일부터 29일까지 부산~제주, 김포~제주 노선에 각각 48편과 26편의 임시 항공편을 편성해 좌석 1만3천860석을 추가 공급한다.

이로써 10월 한 달간 울산~제주를 포함한 모든 제주 노선에 항공편 1천390편을 투입해 좌석 30만석을 공급할 계획이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이달 들어 부산~제주와 김포~제주 노선 탑승률이 95% 이상을 기록하는 등 평일, 주말 모두 제주 노선 좌석을 구하기 어려워졌다"며 "제주 노선 이용객의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증편했다"고 설명했다.

에어부산은 부산~제주(매일 왕복 11편), 김포~제주(매일 왕복 8편), 울산~제주(매일 왕복 2편) 등 3개의 제주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출처: AIRZINE (한국항공 협회, <https://news.airportal.go.kr/>)

5. 티웨이항공, 12월 시드니 신규 취항...국내 LCC 최초



주 4회 운항...347석 비행기 투입

창립 12년만 첫 장거리 노선 운항

티웨이항공은 오는 12월 23일 '인천~시드니' 노선에 신규 취항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드니 노선은 티웨이항공이 창립 12년 만에 처음으로 운항하는 장거리 노선이다.

티웨이항공은 2020년 2월 국내 대형항공사(FSC) 2곳만 운항 중이던 인천~시드니 노선의 운수권을 저비용항공사(LCC) 최초로 획득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347석 규모의 대형기 'A330-300'기종 3대를 도입했다. 지난 5월 인천~싱가포르 노선에 이 비행기를 투입한 데 이어 12월 인천~시드니 노선까지 개척에 나선다. 티웨이항공은 기존 대비 합리적인 수준의 운임으로, 핵심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한다는 목표다. 해당 노선에는 비즈니스 세이버 클래스 2식, 이코노미 클래스 1식의 기내식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이코노미 탑승객은 추가 주문을 원할 경우 사전 예약도 가능하다. 또 저렴한 이벤트

운임 구매 시에도 23kg까지 무료 수하물 위탁이 가능하다.

스마트 또는 일반 운임 구매 시 30kg, 비즈니스 세이버 클래스는 40kg까지 제공한다.

노선 운항 계획은 현지시간 기준 매주 월·수·금·토요일 오후 10시 20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다음 날 오전 10시 45분 시드니에 도착한다. 현지 출발 항공편은 매주 화·목·토·일요일 낮 12시 15분 시드니공항을 출발, 오후 9시 5분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일정이다.

티웨이항공은 지난 8월 현지에 시드니지점을 개설했으며 취항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달 중으로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시드니 노선 항공권 판매를 개시한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성공적인 시드니 취항을 발판 삼아 향후 유럽, 미주 등 장거리 노선망을 구축,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AIRZINE (한국항공 협회, <https://news.airportal.go.kr/>)

6. 대한항공, 3년 만에 객실승무원 채용...100명 이상 뽑는다



대한항공은 14일 객실승무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채용 규모는 100명 이상으로 지원서 접수는 다음달 4일까지다. 접수는 대한항공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지원자격은 기 졸업자 또는 2023년 2월 졸업예정자로 △토익(TOEIC) 550점 이상 또는 토익스피킹(TOEIC Speaking) 레벨6 이상 또는 오픽(OPIc) 레벨 Intermediate Mid 1 이상 자격소지자(2020년 11월 18일 이후 응시한 국내시험에 한함) △교정 시력 1.0 이상이며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 여객 사업량이 여전히 코로나19 상황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일부 객실승무원들이 휴업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일본 무비자 관광 재개 등을 기점으로 올해 연말 이후 국제선 여객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채용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객실승무원 채용에서는 코로나19 상황과 지원자 편의성 등을 고려해 전형 방식을 일부 변경했다.

가장 큰 변화는 ‘비대면 동영상 면접’ 방식 도입이다. 비대면 동영상 면접은 최대 3분 이내로 지원자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직접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방식이다.

체력 테스트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지원자들을 소집해 실시했지만, 이번 채용부터는 지원자들의 편의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체력인증방식으로 대체한다. 지원자들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희망하는 일시에 전국 76개 지역 인증센터 중 장소 및 시간을 예약해 무료로 인증 받으면 된다.

출처: AIRZINE (한국항공 협회, <https://news.airportal.go.kr/>)

7. 2022 전국대학생 드론·UAM올림피아드

2022 전국 대학생

드론·UAM

올림피아드

2022 Korea Student Drone-UAM Olympiad

대회기간 : 2022년 11월 03일 (목) ~ 11월 04일 (금)

*세부일정은 반드시 종목별 모집요강 확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1월 3일과 4일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2022 전국 대학생 드론·UAM 올림피아드'를 개최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이 대회는 '2022년 도심항공교통(UAM) 공항실증행사'와 연계해 차세대 항공분야 기술확산 및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최하고 한국공항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파블로항공 공동주관으로 진행한다.

대회는 4개 부문에서 66개 팀(251명)이 신청했고, 3개 부문(기체창작, 공간정보, 드론교통관리)은 7월까지 진행된 1차 심사를 통과한 20개 팀(기체창작 10개 팀, 공간정보 4개 팀, 드론교통관리 6개 팀)이 참여한다.

1개 부문(버티포트)은 지난 8월까지 접수받아 최종 심사를 완료해 수상하게 된 버티포트 5개 팀이 참가한다.

대회 1일차에는 학술평가(기체창작), 2일차는 개회식, 부문별 발표(교통관리, 공간정보, 버티포트), 비행성능평가(기체창작)가 이뤄지며 시상식도 있을 예정이다.

대회 수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 등에 상금 3600만원이 수여된다.

특히, 이번 대회 수상자들에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신규직 입사지원 시 서류전형 가

점을 부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팀은 국내 컨퍼런스 등 주요행사에 발표기회를 제공한다.

출처: AIRZINE (한국항공 협회, <https://news.airportal.go.kr/>)

해외 뉴스

8. 초음속 돌파 '원조' NASA "'조용한' 초음속 여객기 개발 중"



시속 약 1천200km 이상으로 음속 장벽을 넘어 비행하는 초음속비행기는 빠르기는 해도 음속 돌파 때나 비행 중에 지상에 '음속폭음'(sonic boom)을 일으키는 큰 결점이 있다. 이 때문에 지상과 가까운 곳에서는 초음속비행이 금지되는 등 초음속비행의 발전을 가로막는 또다른 음속 장벽이 돼왔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14일 초음속 비행 75주년을 맞춰 음속폭음으로 인한 음속 장벽 제한을 다시 넘어설 수 있는 '조용한' 초음속 여객기를 개발 중이라고 공개했다.

인류 최초로 물리적 음속 장벽을 돌파한 것도 NASA였다.

지난 1947년 10월 14일 NASA의 전신인 미국항공자문위(NACA)와 공군, 벨(Bell)사가 공동 개발한 '벨 X-1' 로켓항공기가 특별 개조된 B-29 폭탄투하실에서 낙하돼 13.9km 고도에서 마하 1.06(초속 361m)으로 비행하며 당시만 해도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던 초음속 비행의 꿈을 이뤄냈다.

이때 지상에서는 천둥소리 같은 폭발음으로 음속 장벽 돌파를 확인하며 환호했지만

이런 큰 소음 때문에 1973년에는 저고도에서 초음속비행을 금지하는 원인이 됐다.

NASA는 '조용한 초음속 기술'(Quiet SuperSonic Technology)을 뜻하는 '퀘스트 (Quesst) 미션'을 통해 벨 X-1 이후 모든 초음속 비행 및 소음저감 기술을 집약한 'X-59' 시험기를 제작했으며, 내년 초부터 지상과 가까운 고도에서 시험비행을 진행할 계획이다.

록히드 마틴사가 NASA와 계약을 맺고 X-59의 설계와 제작, 초기 시험비행 등을 맡았다.

NASA는 X-59가 음속폭음을 낮춘 초음속 시험비행을 한 뒤 지상에서 이를 들은 주민 반응을 토대로 당국과 초음속 비행 금지 규정 개정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아침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발해도 뉴욕 시내 오찬 시간에 맞출 수 있어 항공여행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또하나의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NASA는 밝혔다.

출처: AIRZINE (한국항공 협회, <https://news.airportal.go.kr/>)

9. 중국 하늘길 연다...동방항공 국제노선 42→108편 확대



중국 제멘신문에 따르면 중국 동방항공은 10월30일부터 시작되는 동계 운항 시즌 국제항공편 운항 횟수를 주간 42편에서 108편으로 늘릴 계획이다. 동방항공은 20일부터 단계적으로 일부 노선을 재개하고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항편을 증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취항 예정인 노선은 인천~칭다오·옌타이·난징, 도쿄~칭다오·항저우·난징·쿤밍, 두바이~칭다오 등이다. ,

중국 남방항공도 10월부터 광저우~자카르타, 다롄~도쿄, 광저우~두바이, 광저우~방콕 등 노선을 재개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남방항공의 국제선은 기존 71편에서 86편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중국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결정될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이후 국경 문을 더 확대할지 주목된다. 당대회는 오는 22일 폐막한다.

중국은 2020년 초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국경을 사실상 닫았다가 최근들은 방역 규정을 조금씩 완화하고 있다. 중국 민용항공국은 지난 8월 7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도입한 국제 정기 항공편 운항 제한을 완화했다. 또한 지난달 중국 문화여유(관광)부와 외교부 등 5개 부처는 공동으로 '국경관리방침' 개정안을 내놓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최대 28일까지 적용하던 입국자 격리 기간도 10일(시설격리 7일+자가격리 3일)로 단축했다.

앞서 지난 14일 주중한국대사관은 현재 주 30회인 한중 항공편 64회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대도시는 공항 방역 한계로 아직 추가 증편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AIRZINE (한국항공 협회, <https://news.airportal.go.kr/>)

10. 독일 '유로윙스' 조종사 파업 돌입...항공편 절반 결항



독일 저가 항공사 '유로윙스' 소속 조종사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내걸고 사흘간의 파업에 나섭니다. 유로윙스는 독일 최대 항공사인 '루프트한자'의 저가 항공사입니다.

유로윙스 조종사들이 소속된 노동조합(VC)는 현지시각 17일 0시부터 19일까지 조합원들에 유로윙스 비행편 전체에 대한 파업 명령을 내렸습니다.

VC는 주간 노동시간을 55시간에서 50시간으로 줄이고, 하루 노동시간을 법정 한도인 13시간으로 한정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이에 대해 10일 추가 휴가와 주간 노동시간 2시간 축소를 제안했지만, 하루 노동시간 한도 강화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17일 계획된 유로윙스 비행편 400편 중 절반에 가까운 비행편이 결항했습니다.

뒤셀도르프 공항에서는 계획된 유로윙스 비행편 171편 중 102편이 취소됐고, 쾰른·본 공항에서는 연결편 43편이, 슈루트가르트 공항에서도 40편이 취소됐습니다.

유로윙스 측은 전체 400개 항공편 중 230편이 운항할 것이라면서, 오스트리아지사 등 다른 유럽지사에서도 대체 항공편이 투입될 것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출처: AIRZINE (한국항공 협회, <https://news.airportal.go.kr/>)